Catholic
청년주보
제1112호
2020년 3월 1일(가해)

사순 제1주일

그림 | **강 마리아**

입당송 시편 91(90),15.16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오래오래 살도록 그에게 복을 내리리라.

제1독서 창세 2,7-9; 3,1-7

화답송 시편 51(50),3-4.5-6ㄱㄴ.12-13.14와 17(◎ 3ㄱ 참조)

◎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

제2독서 로마 5,12-19〈또는 5,12.17-19〉

복음환호송 마태 4,4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복음 마태 4,1-11

영성체송 마태 4,4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연임하게 된
청년 인터뷰

2020년 제13 관악지구 청년연합회 회장 이수정 세실리아

안녕하세요. 올해 지구 회장을 연임하게 된 이수정 세실리아입니다. 작년 13지구 총회 때는 저도 다른 회장들처럼 1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책임감을 훌훌 털어내고 박수 칠 때 떠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총회 때 최종 후보까지 남게 되니 2019년 한해 지구회장으로 어떻게 지냈는지가 필름처럼 지나갔습니다. 인원은 많지 않았지만 행복했던 지구행사, 비슷한 고민으로 서로 마음을 나누었던 교구회의, 무엇보다 제일 큰 선물인 지구와 교구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행복했던 기억으로 올해도 연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지구 임원을 맡기 전에는 직장생활과 지구봉사를 함께 하는 것에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닐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막상 봉사하다 보니 어렵거나 부족한 점들은 모두 주님께서 어떻게든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0년 아직 거창한 목표는 없지만, 진입장벽이 낮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13지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공동번역 성서의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이사 43,4)'**입니다.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이 느껴지는 이 구절처럼 올해도 하느님 사랑 안에서 13지구 회장단들과 예쁘고 행복한 시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악마의 유혹은?

박민태 베드로
서울선택 교육분과

저는 만 9년간 주일학교 교사로서 신앙생활을 하며 저의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늘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아침잠이 많은 저에게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은 늘 힘든 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밤에 친구들과 어울리며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저에게 다음 날 아침 9시에 있는 중고등부 미사에 참례해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일 아침 이불 속에서 알람 소리를 들을 때면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하루 정도 쉴까?' '아프다고 문자 하나 보내고 더 잘까?' 하고 끊임없이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아직 교사에 대한 마인드가 정립되지 않았던 신입 교사 시절, 저는 주일 전날 늦게까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새벽이 되고 나서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동료 교사들에게 연락하고, 그날 기분 좋게 늦잠을 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문자 하나가 와있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학생 한 명이 보낸 문자였는데, 몸이 안 좋아 성당에 못 나온 것에 대해 걱정이 되어 저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님 몸은 괜찮으세요? 오늘 아프시다고 해서요… ㅠㅠ 빨리 나으시고 다음 주에는 꼭 만나요.^^" 순간 저는 그 문자에 얼굴이 뜨거워졌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아침 8시 반에는 반드시 성당에 앉아있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주일 전날 밤 늘 유혹에 시달렸지만, 늦지 않게 자리를 마무리하거나, 다음 날 아침 피곤한 몸을 일으켜 미사에 참례하였습니다. 그 결심 후 주일학교 학생들을 만나면 피곤함이 가셨고, 학생들이 눈을 비비며 아침부터 성당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힘겹게 일어나며 갈등하던 저의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교리와 간식시간까지 마치고 나면 '오늘도 악마의 유혹을 떨치고 주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갔구나!'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악마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 악마의 유혹은 어떤 것일까요? 꼭 큰 범죄와 같은 행위만이 악마의 유혹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이런 작은 일쯤 괜찮지 않을까?', '나 하나쯤이야 큰 영향 없을 것 같은데'와 같은 작은 일도 악마의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주일 아침 늦잠을 자고 싶었던 마음이 바로 악마의 유혹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를 드릴 때마다 늘 지향하는 것이 있습니다. 즐거울 때나, 힘겨울 때도 늘 주님께서 제 곁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멀리 여행을 가거나, 주일에 특별한 스케줄이 있을 때면 주일미사 참례에 대한 고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다음 주에 고해성사 드리면 되지'와 같은 가벼운 마음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주님을 저 스스로 멀어지게 하는 악마의 유혹이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악마의 유혹은 무엇인가요? 저 또한 앞으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악마의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릴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광야에서 악마의 유혹을 떨쳐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기도를 바치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주님이 머문 자리

원치 않은 일 때문에 일찍 하루를 시작했던 주말 아침,
한강 위에서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네는 태양이
마치 주님의 응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하루의 시작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희 로사]

여러분의 일상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느낀 순간을 사진과 글에 담아 보내주세요. KakaoTalk 플러스친구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친구 추가 후 전송

『말씀가지』 성경 구절의 의미를 찾고 성찰하는 길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단식하심(마태 4,2 참조)

사순절: 모세, 엘리야, 예수님의 단식과 기도에서 40일 유래 → 특별히 예수님의 수난을 기념하며 보속과 참회의 시기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

호렙산을 향해 걸었던
엘리야의 40일 단식
(1열왕 19,8 참조)

시나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 모세의 40일 단식
(탈출 24,18 참조)

40일
(기다림, 단련, 준비의 시간)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마태 4,3;4,6)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신원의식을 충동질

오늘의 말씀 <마태4,1-11>
사탄아, 물러가라.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마태 4,9)
제안을 따를 때 얻을 것

designed by Freepik from Flaticon

첫번째 유혹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마태 4,3)

'먹을 거리'에 관한 문제

일상사에서 겪는 유혹

designed by Freepik from Flaticon

두번째 유혹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마태 4,6)

'거룩함'을 배경으로 유혹

거룩한 예루살렘 도성에서,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거룩한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유혹

성경의 기반을
뒤흔드는 고도의 전략

designed by Freepik from Flaticon

세번째 유혹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마태 4,9)

모든 나라와 그 영광
우주적 주권에 관한 유혹

이 주권은 악마의 유혹에
타협하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짐

내 마음 밭에 다가온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악마라면 가히 도둑질 혹은 살인과 같이 누가 봐도 뻔히 '죄'라는 것이 절실히 드러나는 유혹들만 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의 사탄은 일상에서 겪는 일(먹거리 등)에 관한 것으로, 나의 자존감에 대한 충동질로서, 심지어는 성경 말씀으로도 우리를 하느님과 멀어지도록 유혹합니다. 참으로 넘어갈 만한, 참 매력적인 유혹들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0일을 단식하신 예수님께 사탄이 다가갔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악마는 우리에게 다가오겠지요. 다가와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목소리로 둔갑하여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악마의 소리와 하느님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에도 악마가 아닌 하느님께 나아가는 제가, 또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최유진 스텔라]

말씀 심기

● 당신에게 다가온 말씀은 무엇인가요?

●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싶나요?

"그분은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안지연 엘리사벳 / 서교동 성당

오랜 시간 냉담을 하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다. 소원했던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을 때의 어색함, 처음 성당을 찾았던 그 당시의 내 모습이 그랬던 것 같다. 쭈뼛쭈뼛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의식해 미사에 집중하지 못하곤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평온함이 찾아왔다. 너른 품으로 나를 감싸주시는 주님을 느낄 때마다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 냉담을 선택했던 과거의 내가 부끄러워 기도의 시간에 늘 자책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그 경험은 나를 더 신앙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그 뒤로 주일마다 미사를 드리고 본당 성가대 활동을 하며 일상 속에 믿음의 씨앗들을 하나씩 심어나갔다. 그리고 성서 모임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만난 주님의 말씀들은 좋은 양분이 되어 나를 조금씩 성장시켰다. 말씀 안에서 때로는 나를 돌아보며 반성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느끼면서 말이다. 그때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

그에 대한 응답이었을까. 주님은 나를 또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 1년여 전 SNS를 통해 우연히 주보편집부 봉사자를 찾는다는 소식을 접했다. 당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던 때라 사실 시간적 여유가 있던 건 아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무언가에 이끌리듯 주보편집부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주보편집부의 일은 그리 만만치 않다. 매주 회합을 통해 주보에 실릴 내용들을 기획하고 구성하는 것은 물론, 취재와 원고 작성 그리고 디자인 작업까지 모두 봉사자들의 몫이다. 그렇다 보니 때로는 봉사가 일처럼 느껴져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날도 그랬던 것 같다. 참석 인원도 적고 회의가 잘 풀리지 않아 모두가 지쳐있던 때, 수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이 만드는 주보 속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순간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맞아. 나도 그랬었지.' 냉담을 풀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외롭고 답답했는데 그때 내게 위로가 되어준 것이 주보였다. 그 속에 담긴 신앙적 이야기들은 아직도 내게 큰 힘이 되어준다.

신앙생활을 하며 가끔씩 생각해본다. 주님은 무엇을 주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을까. 힘든 일도, 기쁜 일도 무엇이든 돌아보면 그 속에 주님의 뜻이 담겨 있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놓쳤을 뿐. 그렇기에 우리는 늘 묵상하고 기도하며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2020년 청년 전례학교 초급 1차

일시 3월 28일(토), 29일(주일) (2일간 교육)
대상 전례에 관심 있는 청년 (본당별 선착순 3명)
교육비 40,000원
신청 3월 10일(화) 14시~
청년부 홈페이지(www.2030.or.kr)에서 신청

CCA 청년시민학교 2020년 봄 항해 선원 모집

사회 교리 - 주제별		사회 복음 - 루카	
35세 이하 청년 (각7명) 신앙의 눈으로 사회문제 나눔(13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안국동	JU 동교동	오금동 성당
3.4(수) 19:30	3.6(금) 19:30	3.7(토) 19:30	3.8(일) 14:00
함께하는 신부님:이석균, 김홍주, 전준희			
일등항해사 윤 아녜스 010. 3413. 0121(회비3만원, 선원수첩, 교재 제공)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편집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주보편집부/ 전화 : 02) 762-5071, 2/ 이메일 : mail@2030.or.kr/ 홈페이지 : www.2030.or.kr/ 주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2길 49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인쇄 : 가톨릭출판사